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택시 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전자담배를 다음 손님에게 마음대로 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승객 A씨는 "택시 기사가 내 분실물을 다음 손님한테 그냥 줬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바지 주머니에 전자담배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 어젯밤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며 "오늘 아침 알아차려서 카카오택시에 전화했다"고 설명했다.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아가씨 건줄 알았는데, 다음 손님이 '가져도 되냐'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당시 A씨가 "그 손님 연락처는 받았냐"고 묻자 택시 기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받았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A씨는 "당연히 보관하고 있다거나 택시 안에 전자담배가 없었다는 답을 들을 줄 알았다"며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 기사님에게 계속 전화하는 중인데 받지를 않는다"고 토로했다.이어 "카카오택시에 연락했더니 도움 줄 게 없다면서 파출소에 신고하라고 했다"며 "절도죄는 아니고 횡령죄는 성립할 것 같다고 해서 파출소에 다녀오려고 한다. 기사님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지 못한 게 한"이라고 덧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승객 물건을 왜 마음대로 주냐", "그걸 달라는 손님도 이해가 안 된다", "괘씸해서라도 신고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에 따르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3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앱(애플리케이션) 내 '이용기록'을 통해 기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차량번호는 7일 동안 확인이 가능하다. 3일이 지났다면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택시 운수사나 운수 조합으로 문의할 수 있다.플랫폼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티머니 대표전화(1644-1188)로 전화해 결제 시 사용한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내 유실물센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등에 신고할 수 있다.